

제23회 전국취화대회 수상작품전 및 초대작가전(-20) /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1,2,3,4전시실
 이학수의 미력웅기전(-20) /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1전시실
 협성대 졸업전(-20) /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 1,2전시실
 김지원 첫스텝 / 국립극장 별오름극장
 경기도립국악단 (김영동의 음악세계-바람의 소리) / 국립국악원 예약당
 월하어침가곡보존회 제6회 정기공연 / 국립국악원 우면당
 자고 루시에 트리오 내한공연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SYI Trio 연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안애순 무용단 <복수는 가슴 아픈 것>(-16) /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
 황윤영 피아노 독주회 / 금호아트홀

15일 사)중앙국악관현악단 <함께하는 신명나는 국악한마당> / 국립국악원 예약당
 제2회 이견희 피리독주회 / 국립국악원 우면당
 코리아인심포니 창단20주년 기념음악회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박근지 피아노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어울림 챔버 정기연주회 / 금호아트홀

16일 조재혁(-17) / 국립극장 별오름극장
 세종국악관현악단 제28회 정기공연 / 국립국악원 예약당
 박수은 <최옥산류 가야금산조발표회> / 국립국악원 우면당
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김은아 바이올린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민혜성, 김현미, 박경옥 트리오 연주회 / 금호아트홀

17일 송년발레 <호두까기 인형>(-25) / 세종문화회관 대극장
 [토요상설] 황중형 / 국립국악원 예약당
 정주희 <삼청가 원창발표회> / 국립국악원 우면당
 청소년 국악문화탐방 / 국립국악원 예약당
 파리나무신자가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스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SACO이기 콘서트 (박미혜의 Love Story)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김지윤PF, 윤지영C연주회 / 금호아트홀
 김희정 피아노 독주회 / 금호아트홀

18일 황성호의 (Video Cantata)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김정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/ 세종문화회관 소극장
 신나는 우리동요세상 / 국립국악원 우면당
 우리춤소금이 함께하는 서울튜터앙상블 제35회 정기연주회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유경화 피아노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전 /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
 강현종 바이올린 독주회 / 금호아트홀

19일 국악꽃향기-김영동 / 세종문화회관 소극장
 서정숙 (미말) / 국립극장 달오름극장
 '올해의 예술상' 시상식 /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
 21세기 음악축제(-20) / 금호아트홀

20일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제128회 정기연주회 / 세종문화회관 소극장
 제2회 이소정의 춤 / 국립극장 달오름극장
 국악실내악단 슬기둥 창단 20주년 기념 송년공연 / 국립국악원 예약당
 Lecture Concert <국악기를 사용하는 현대음악> / 국립국악원 우면당
 서울모데트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김문정 피아노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이경은 · 춤 · 2 <역겨운 예>(-22) /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

21일 향기나는 클래식 2005 / 세종문화회관 소극장
 양진 한신 서예조국 조국강산(-27) /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1,2,3,4전시실
 현대사생회 정기회전(-27) /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1,2전시실
 제13회 한국광고사진대전(-27) /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 1,2전시실
 뱀과의 유희(-31) / 국립극장 별오름극장
 한국카톨릭전례무용단 창단 5주년 기념 기획공연 / 국립국악원 예약당
 제14회 전국민요경창대회 / 국립국악원 우면당
 채리타첼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최경희 바이올린 독주회 / 금호아트홀

22일 베이스 이시재 귀국 독창회 / 세종문화회관

KBS국악관현악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/ 국립국악원 예약당
 서울악회 고려가요 재현 공연 / 국립국악원 우면당
 화동연우회 연극 <코리아올라누스>(-31) /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
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6회 정기연주회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이석준 호른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이해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/ 금호아트홀

23일 2005 음악춘추 우수대위 연주회 / 세종문화회관 소극장
 국립중학교 제13회 소리샘예술제 / 국립국악원 예약당
 가야금 絃소리 중주단 창단 연주회 / 국립국악원 우면당
 발레 <호두까기 인형>(-31) /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
 서울예술단 음악극 <크리스마스 캐롤>(-30) / 예술의전당 토월극장
 2005 화이트 크리스마스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김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우리 뮤지컬의 힘 Part 1 '2005 댄스뮤지컬 <겨울이야기>(-25) /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
 금호아트홀 크리스마스 콘서트 / 금호아트홀

24일 론 브랜튼과 클레가 꾸미는 <재즈 크리스마스> / 세종문화회관 소극장
 겨울방학특선 어린이 창작 앙코르 <흥부놀부>(-30) / 국립극장 달오름극장
 [토요상설] 대려형 / 국립국악원 예약당
 경기도립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유키 구리모토 크리스마스 내한공연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문재연 피아노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이지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
25일 한국오페라부파협회와 함께하는 <크리스마스 가족음악회> / 세종문화회관 소극장

26일 샹테페르부르크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/ 세종문화회관 대극장
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 / 세종문화회관 소극장
 이현정 피아노 독주회 / 금호아트홀

27일 쉐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/ 세종문화회관 대극장
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/ 세종문화회관 소극장
 (재)서울시향 연주회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오준경 · 박미성 듀오연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임가진 바이올린 독주회 / 금호아트홀

28일 서울오페라단 창단30주년 기념공연 / 세종문화회관 대극장
 서울오페라단 창단30주년 기념 및 스포츠서울 창간 20주년 기념대공연 / 세종문화회관 대공연
 서울시극단 공연(-2006. 1. 30) / 세종문화회관 소극장
 제9회 목원대 동양화과 졸업전(-2006. 1. 3) /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 1,2전시실
 2005 국립국악원 송년공연 (태평서곡)(-29) / 국립국악원 예약당
 샹테페르부르크 심포니 내한공연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피경선 피아노 독주회 / 예술의전당
 극단 예우 (간사지)(-2006. 1. 8) /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
 육십나무무용단 (엠프롬프트(Impromptu))(-29) /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
 이수미 첼로 독주회 / 금호아트홀
 2005년도 대표작가초대전 (양주혜:길끝의 길)(-2006. 2. 11) / 아르코미술관 전관

29일 개교100주년 기념 고려대학교 송년음악회 / 세종문화회관 대극장
 서울바로크합주단 송년음악회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박지원 피아노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<세화견문록>(-2006. 2. 16) /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
 부파와 베리조모 콘서트 / 금호아트홀

30일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 2005송년음악회 / 세종문화회관 대극장
 한국가요제 / 국립극장 해오름극장
 제7회 그랜드피아노콘서트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송희 피아노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
31일 송년음악회 / 세종문화회관 대극장
 국립극장 겨울축제 (희망의 노래) / 국립극장 해오름극장
 2005 국립극장 원창판소리 (안숙선의 제야 원창판소리) / 국립극장 달오름극장
 2005 제아음악회 /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 이은지 피아노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 정희경 피아노 독주회 /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

BOOK REVIEW

『피나 바우쉬』 요헨 슈미트 지음, 이준서 · 임미오 옮김, 을유문화사, 2005



‘탄츠 데아터’ 거장의 삶과 작품세계

인물의 연대기와 삶을 다루는 평전에는 과거와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. 한 인간의 몸에 고스란히 저장된 그런 것들이 언어로 옮겨지는 곳이 평전이다. 그런 면에서 평전은 한 인간의 죽은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, 그것을 죽은 언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. 평전은 인간의 삶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쁜 책이다. 그 삶이 농축되어 드러나는 놀라운 책이다. 좋은 평전은 한 인간의 삶과 그 그림자까지 담아내고 있다. 빈약한 삶은 있어도, 빈약한 평전은 없다. 이 책은, 옮긴이의 말을 빌리면, 춤과 연극의 결합을 말하는 탄츠 데아터의 거장, 피나 바우쉬의 “개인적 변모와 작품세계가 어떻게 맞물려 창조적으로 작용하는가”를 서술하고 있다. 평전이되 과거를 다루지 않고, “하는가”처럼 현재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. 그 이유는 피나 바우쉬가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활동 중인 여성 안무가들 가운데 거장이기도 하거나와 당대 춤연극의 관심사가 피나 바우쉬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. 그는 분명 춤연극을 연출하는, 춤연극의 기원이다.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피나 바우쉬, 춤연극은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다. 책을 펼치자. 책의 목차를 보면, 모두 16개의 장이 있다. 하나하나 제목이 있고, 부제가 있다. 춤연극

이 몸으로 언어를 드러내는 것이라면, 이 책의 목차는 언어로 그의 육체를 설명하는 것 같다. 16개의 제목으로 명백하게 선언하는 이 목차는 피나 바우쉬와 춤 연극을 규정한다. 1장의 제목은 ‘새로운 춤의 억척어멈’인데, 부제는 ‘어느 기념비적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’이다. 그 내용은 춤연극이 지닌 ‘이제까지 써왔던 언어와 표현방식들로는 불가능한 의사소통’으로서 춤연극에 관한 것이고, 사적인 삶이 조금 언급되고 있다. 책은 계속해서 사적인 삶과 공적인 작품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. 2~5장은, 피나 바우쉬의 성장과 춤 연극의 탄생에 관한 수업시대의 이야기이다. 그것은 춤을 통한 의사소통 언어의 발견과 새로운 동작과 형식과 구조들의 고안이며, 부파탈 발레단의 운영을 맡으면서 예술적 경계의 초월과 예술적 장벽의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춤예술의 정의-예컨대 여성들의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지의 전달수단, 관객들의 익숙한 관구체함에 어긋나는 낯선 몸놀림들-에 이르는 과정의 서술이다. 그리고 1977년 이후, 그러니까 피나 바우쉬 춤연극과 탄츠데아터 부파탈이 순회공연을 통하여 세계적 명성을 얻어가는 역사를 말하고 있다. 이 사이, <카페 물러> <봄의 제전> <아리아> <매 음굴> <순결의 전설> <1980> <카네이션>과 같은 불후의 작품들

이 피나 바우쉬의 연대기를 수놓게 된다. 작품을 구상하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6장부터는 부제처럼 “작품은 어떻게 생겨나는가”를 말하고 있다. 첫 번째는 ‘무용수들을 향해 질문하는 것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일’이고, 두 번째는 이것을 ‘심화, 확대, 변형할 수 있도록 다시 뒤져내는 일’이다. 구체적으로는 “어린 시절, 사랑과 부정함, 동경, 두려움, 사랑받고 싶은 소망, 더 이상 없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,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아쉬워하는 것”들이다. 한마디로 피나 바우쉬는 무용수들에게 작품을 만들면서 ‘수백 가지 질문을 하는 안무가’이다. 그것이 그가 작품을 만드는 기원이다. 질문과 답은 곧 “연습 중에 발견되고, 시험되어” 구성되며, “연극적인 몽타주의 장면적인 병렬과 통합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된다”이다. 그 후 7장과 10장은 순회공연에 관한 글이고, 8장부터는 순회공연의 영향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변모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. 9장은 무용수들에 관한 내용이다. 피나 바우쉬에 관해서 잘 알고 싶다면, 춤과 교육을 언급하고 있는 11, 16장부터 읽는 것이 좋다. 나머지는 무대, 음악, 옷, 춤연극과 영화에 관한 내용이다.

안치훈 |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, 연극평론가